제30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 업 무 현 황

2011. 9. 26.

KNOC 한국석유공사

# 목 차


Ⅰ. 일반현황 ····· 1

Ⅱ. 주요사업 추진현황 ····· 7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 대형화 추진 ····· 9

2. 글로벌 석유기업 도약을 위한 석유개발사업 추진 ··· 11

3. 차질없는 정부 석유비축사업 추진 ····· 16

4. 석유트레이딩 역량 강화로 석유산업발전 선도 ··· 18

5. 석유정보서비스 강화 ····· 22

6.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 23

Ⅲ. '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25

# I. 일반현황

1. 목적 및 임무

2. 자본금

3. 조직 및 정원

4. 재무현황

## 1 목적 및 임무

### □ 설립 목적

○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한국석유공사법 제1조)

**「한국석유공사」 설립 배경**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국가의 안정적인 석유공급 확보**라는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79. 3월 공사 설립**

### □ 주요 사업(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 비축 · 수송 · 대여** 및 **판매**
○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 관리 · 운영** 및 **대여**
○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 · 융자 · 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 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 2 자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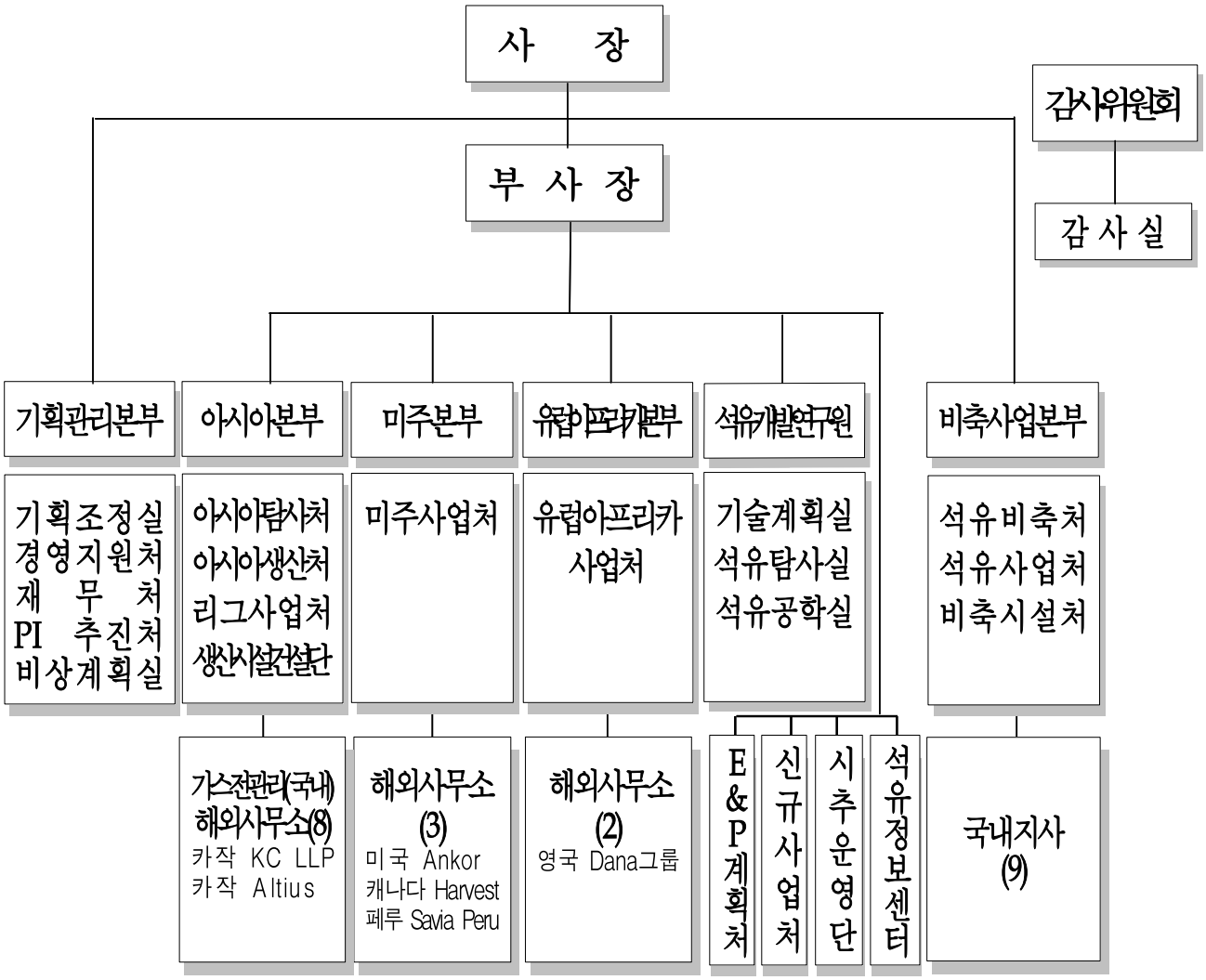
('11. 8월말 현재)

| 법정자본금 | 납입자본금 | 비 고 |
|---|---|---|
| 10조원 | 8조 9,255억원 | · 일반회계 : 223억원<br>·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조 9,032억원 |

## 3 조직 및 정원

### □ 조 직

○ 5본부, 1원, 22처・실・센터, 10국내지사・사무소, 13해외사무소로 구성




### □ 정 원

(단위 : 명)

| 구 분 | 상임임원 | 직 원 | | 계 |
|---|---|---|---|---|
| | | 본 사 | 지사・사무소 | |
| 정 원 | 7 | 657 | 629 | 1,293 |

# 4 재무현황

## □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 자 산 | | | 부채 및 자본 | | |
|---|---|---|---|---|---|
| 구 분 | 2010년 | 2011.6월 | 구 분 | 2010년 | 2011.6월 |
| ■ 유 동 자 산 | 26,718 | 32,077 | ■ 부 채 | 158,710 | 191,228 |
| - 현금성 자산 | 15,530 | 16,278 | - 유 동 부 채 | 51,606 | 53,346 |
| - 매출채권 등 | 11,188 | 15,799 | - 비 유 동 부 채 | 107,104 | 137,882 |
| ■ 비 유 동 자 산 | 233,649 | 264,080 | ■ 자 본 | 101,657 | 104,929 |
| - 석유개발자산 | 136,261 | 168,305 | ○ 지 배 지 분 | 101,068 | 104,088 |
| - 영 업 권 | 14,001 | 14,416 | -자 본 금 | 81,302 | 88,055 |
| - 비 축 유 | 29,805 | 28,037 | - 이익잉여금등 | 19,766 | 16,033 |
| - 자회사투자지분등 | 53,582 | 53,322 | ○ 비 지 배 지 분 | 589 | 841 |
| 계 | 260,367 | 296,157 | 계 | 260,367 | 296,157 |

## □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 비 용 | | | 수 익 | | |
|---|---|---|---|---|---|
| 구 분 | 2010.6월 | 2011.6월 | 구 분 | 2010.6월 | 2011.6월 |
| ■ 매출원가 | 21,709 | 31,683 | ■ 매출액 | 26,100 | 41,399 |
| - 석유개발원가 | 7,477 | 13,927 | - 석유개발매출액 | 12,150 | 23,403 |
| - 비축사업원가 | 14,089 | 17,596 | - 비축사업매출액 | 13,558 | 17,596 |
| - 기타사업비 등 | 143 | 160 | - 기타사업수익 등 | 392 | 400 |
| ■ 일반관리비 | 1,187 | 1,946 | | | |
| ■ 기타비용 | 1,289 | 3,143 | ■ 기타수익 | 1,241 | 2,660 |
| ■ 금융비용 | 3,789 | 3,014 | ■ 금융수익 | 248 | 1,146 |
| ■ 법인세비용 | 275 | 5,524 | | | |
| ■ 당기순이익 | △660 | △105 | | | |
| 계 | 27,589 | 45,205 | 계 | 27,589 | 45,205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의거·작성

□ ’11년도 예산 : 7조 6,781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 | 2011년 예산 | 8월말 계획 (A) | 8월말 실적 (B) | 집행률 (B/A,%) |
|---|---|---|---|---|---|
| 비용예산 | ■ 매출원가 | 15,560 | 8,278 | 5,942 | 71.8 |
| | - 상품제품매출원가 | 13,754 | 6,985 | 4,909 | 70.3 |
| | - 비축사업비 등 | 1,806 | 1,293 | 1,033 | 79.9 |
| | ■ 일반관리비 | 1,318 | 958 | 640 | 66.7 |
| | ■ 광구관리비 | 206 | 152 | 105 | 69.1 |
| | ■ 영업외비용 등 | 3,476 | 1,970 | 1,940 | 98.5 |
| | ■ 법인세 | 261 | 131 | 1,109 | 848.8 |
| 계 | | 20,821 | 11,489 | 9,736 | 84.7 |
| 자본예산 | ■ 석유개발사업 | 34,639 | 28,740 | 18,026 | 62.7 |
| | - 해외유전개발 | 33,790 | 28,112 | 17,901 | 63.7 |
| | - 국내대륙붕개발 등 | 849 | 628 | 125 | 19.9 |
| | ■ 석유비축사업 | 19,547 | 8,127 | 3,927 | 48.3 |
| | - 비축유구입 등 | 19,061 | 7,729 | 3,560 | 46.0 |
| | - 비축시설건설 | 486 | 398 | 367 | 92.7 |
| | ■ 기 타 | 1,774 | 1,104 | 433 | 39.3 |
| 계 | | 55,960 | 37,971 | 22,386 | 59.0 |
| 예 산 합 계 | | 76,781 | 49,460 | 32,122 | 65.0 |

# Ⅱ. 주요사업 추진현황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 대형화 추진

2. 글로벌 석유기업 도약을 위한 석유개발사업 추진

3. 차질없는 정부 석유비축사업 추진

4. 석유트레이딩 역량 강화로 석유산업발전 선도

5. 석유정보서비스 강화

6.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 대형화 추진

## 가. 공사 대형화 추진경과

### □ 추진경위

○ '08.3.21 : 석유공사 발전방안수립전담반 구성

○ '08.6.12 : 정부 공사 대형화방안 발표

**◆ 공사 대형화 개요 ◆**

◈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2년까지** 생산 규모를 **일일 30만배럴** 수준으로 확대

☞ 생산규모 : ('07) 5만배럴/일 ⇒ **('12) 약 30만배럴/일**

### □ 추진목표

○ 연도별 생산량·매장량 실적 및 목표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
| - 연간생산량(백만배럴)<br>· 일생산량(천배럴) | 18<br>(50) | 17<br>(57) | 28<br>(128) | 52<br>(180) | 77<br>(238) | 103<br>(306) |
| - 매장량(억배럴) | 5.2 | 5.5 | 8.8 | 11.3 | 13.7 | 20.7 |

### □ 추진실적

○ **해외 석유기업 및 자산 인수**

| 인수 년월 | 인수대상 | 일생산량* (천배럴) | 매장량* (백만배럴) | 비고 |
|---|---|---|---|---|
| '09.2월 | 페루 Savia Peru사 | 7 | 75 | 국내최초 해외석유사인수 |
| '09.12월 | 캐나다 Harvest사 | 48 | 199 | |
| '09.12월 | 카작 Sumbe사 | 1 | 49 | 사명변경 KC LLP |
| '10.12월 | 영국 Dana사 | 48 | 244 | 적대적 M&A방식 |
| '11.2월 | 캐나다 Hunt 자산 | 12 | 51 | |
| '11.3월 | 카작 Altius사 | 10 | 54 | |
| '11.3월 | Petro Canada UK 자산 | 16 | 34 | |
| '11.4월 | 미국 Anadarko사 셰일오일자산 | 7 | 116 | 최초의 비전통 생산유전 지분인수 |

* 일생산량, 매장량 : 인수당시 공사지분몫 기준

## 나. 공사 대형화 추진 주요성과

○ **석유기업 인수**에 따른 **시너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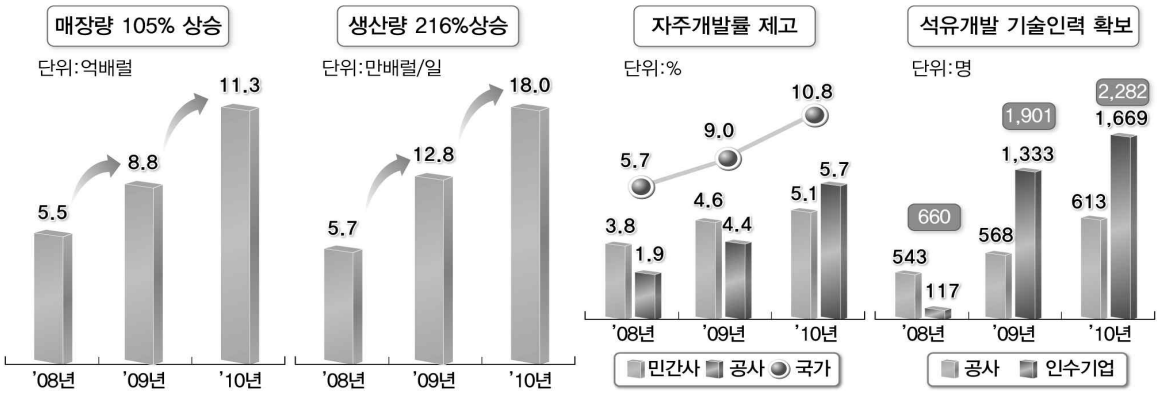
- **선진 기술력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1,669명)로 공사 석유개발 역량 강화

  * 인수자회사 전문인력을 공사 기존사업 및 다른 인수기업에 적극 투입

- 인수자회사(캐나다 Harvest사, 영국 Dana사 등)의 **선진경영기법 벤치마킹**

○ **자주개발률 획기적 제고** 및 **글로벌 석유기업의 초석** 마련

- 국가 자주개발률 10%대 진입('08년 5.7% → **'10년 10.8%**)




## 다. 향후 추진계획

○ **'12년 대형화목표를 필히 달성**함으로써 **지역메이저(일산 30만배럴)**로 성장한 후, **'19년까지 글로벌 석유기업(일산 60만배럴)으로 도약**

  * 대형화 목표 달성이후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반 구성('11.9월)

## 2 글로벌 석유기업 도약을 위한 석유개발사업 추진

### 가.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현황

#### □ 해외 석유개발사업

○ '11. 8월말 현재 23개국 210개 사업진행 중(생산 63, 개발12, 탐사135)

<공사 해외석유개발사업 진출현황도>

*사업진출현황도는 국내 생산사업 1개(동해-1 가스전) 포함

#### □ 국내 석유개발사업

○ '98.7월 동해에서 최초로 가스전을 발견하고, '04.7월 동해-1 가스전 생산개시에 따라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 선언

○ 생산 및 공급현황('11.1~8월 평균)

- 가스(57백만입방피트/일) : 한국가스공사, 초경질유(1,021배럴/일) : S-oil

#### □ 생산현황

○ 국내외 생산광구에서 약 203천배럴/일 생산 중

('11.1~8월 평균, 공사 몫 기준, 단위 : 천배럴/일)

| 구분 | 유럽·아프리카(61) | | 중동·아시아(55) | | | | 미주(87) | | | | 계 |
|---|---|---|---|---|---|---|---|---|---|---|---|
| | 영국 Dana | 리비아 엘라펀트 등 | 베트남 11-2 | 베트남 15-1 | 동해 가스전 | 카작 Altius등 | 캐나다 Harvest | 미국 Ankor | 미국 Eagle Ford | 페루 Savia Peru등 | |
| 생산량 | 53 | 8 | 13 | 11 | 12 | 19 | 55 | 13 | 9 | 10 | 203 |

## 나. '11년 추진성과 및 계획

◆ '11년 사업추진 기본방향 ◆

◈ 최근의 고유가와 국제석유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향 재설정

**석유기업 M&A ⇒ 유망 생산자산 선별인수**

* 초기에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생산자산 집중 공략

### □ 적극적인 신규매장량 확보('11년 목표 300백만배럴)

○ 기확보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인수자회사가 보유한 지역전문성 및 선진기술력을 활용하여 유망자산 선별·인수 추진

○ 인수후 기존사업과의 인력·시설·기술력 공유를 통해 시너지 창출

⇒ 본사주도 신규사업과 인수자회사를 활용한 거점확장 병행 추진으로 매장량 300백만배럴 추가 확보 목표

<지역거점(Operating Base)>

| 유럽·아프리카 | 중동·아시아 | 미주 |
|---|---|---|
| 영국 Dana사 | 본사 | 캐나다 Harvest사<br>미국 Ankor사<br>페루 Savia Peru사 |

○ 유망생산자산 매입을 통해 **신규매장량 255백만배럴 기확보**

- 비전통석유 본격 개발 : 116백만배럴

· 미국 Anadarko사 셰일오일[1] 자산 인수(116백만배럴/'11.4월)

* 최초의 비전통 생산유전 지분인수로, 유망 비전통자원 부존지역 조기 선점과 관련 기술개발역량 확충의 기반을 마련

- 전통석유 매장량 추가확보 : 139백만배럴

· 카자흐스탄 Altius Energy사 인수(54백만배럴/'11.3월), 캐나다 Hunt 자산 인수(51백만배럴/'11.2월), Petro Canada UK 자산 인수(34백만배럴/'11.3월)

---

1) 셰일오일(Shale Oil) : 전통적인 원유와는 달리 원유가 생성되는 근원암인 셰일층에서 회수하는 오일로 전 세계적으로 2.57조배럴의 셰일오일(가스)가 부존(美 지질조사국 자료)

## □ 인수자회사의 유기적 통합으로 성공적인 PMI[2] 추진

○ 자회사별 지역적 특성, 자산구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 구사
- 생산광구 위주인 Ankor,Harvest,Sumbe : 생산능력 극대화 중점
- 탐사자원량이 많은 Dana 및 Savia Peru : 탐사성공률 제고 중점

* 인수자회사[3] 일생산량 변화 : 13% 상승
· 인수당시 116천배럴 ⇒ PMI 추진후('11년 8월말) 131천배럴

○ 글로벌 운영위원회(Global Steering Committee) 개최 (3회/'11.5,7,11월)
- 공사와 인수자회사간 유기적인 통합경영체제구축과 시너지창출
- 중장기 발전계획, 기술력 공유, 탐사성공률 제고방안 등 토론

○ 해외사무소장 전략회의('11.1월), 해외사무소 재무관리자 회의('11.8월), 해외사무소 현지채용인력 본사 초청교육('11.8월) 실시
- 공사비전과 전략공유를 통해 본사-해외사무소간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이질적 기업문화 해소

【글로벌 운영위원회 개최】

【해외 현지채용인력 본사 초청교육】

## □ 광구운영 효율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11년 목표 77백만배럴)

○ 기존광구 안정적 생산 및 생산광구 생산정 시추활동 강화로 (297공 목표) 생산량 증대노력 경주(* '11.1~8월 실적 : 46백만배럴)

○ 재해예방 및 환경손실 최소화로 광구운영 효율성 극대화
- 전문기술인력 확보, 보건·안전·환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 PMI : Post Merger Integration(합병 후 통합과정).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등 제반환경이 서로 다른 조직을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3) 5개 인수자회사(Ankor사, Harvest사, Sumbe사, Dana사, Savia Peru사) 일생산량 기준

## □ 탐사사업의 성공적 추진

○ 최적의 탐사시추 수행 : 58공 목표

- 미주지역 20공, 중동·아시아지역 15공, 유럽·아프리카 22공, 국내 1공 등

○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협력강화 및 쿠르드지역 탐사사업 지속 추진

- 이라크 중앙정부 사업
  · 한·이라크 중앙정부간 경제에너지 협력촉진 합의서 체결('11.4월)
  · 이라크 국영석유판매회사(Somo사)와 장기원유공급계약 (66천배럴/일) 체결('11.8월)
- 쿠르드 지방정부 탐사사업
  · 쿠르드 상가우사우스 광구(시추 중), 하울러광구('12년 시추 예정)

○ 국내대륙붕 동해 심해광구 시추실시로 심해시추 기술력 제고

- 호주 Woodside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심해지역 탐사시추('11.9월)

## □ 석유개발 기술력 향상 노력

○ 탐사유망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 구사

- 기술평가위원회(시추위치 선정, 탐사광구 상시평가 역할 수행)운영 및 시추 후 평가(Post Well Evaluation)를 통한 탐사역량 극대화

○ 탐사성공률 제고 도모

- 기업문화차원의 전사역량 결집을 위해 전직원 상대 설문조사, 각종 회의시 탐사성공률 제고방안 토론,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시
- 글로벌 석유회사출신의 해외전문기술인력 영입 추진

○ 글로벌 기술연구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

- 공사 주요사업(아부다비,이라크사업 등) 기술지원 및 독자적 연구개발 수행
-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채용(5명) 및 공사인력 현지파견(5명)

○ 본사-인수자회사간 석유개발 기술심포지엄 개최('11.9월)

- 선진기술 공유, 성공사례전파, 기술력향상방안 등 논의

○ 석유개발 기술인력 경력관리제도 운용 활성화('11.4월~)

- 기술인력군내 전문기술자(specialist)와 관리자(manager)경로를 분리운용함으로써, 전문기술인력 직무별 전문성 강화
- 경력개발·인사관리·교육훈련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전문기술인력 체계적 경력관리 도모

## □ 자원외교를 통한 핵심거점지역 공략

○ 아시아 국영석유사 최고경영자 포럼(Asian NOC CEO Forum) 개최('11.7월)

-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영석유사간 전략적 협력강화방안 논의
- 일본·중국·UAE·터키 등 8개국 16개사 국영석유사 CEO 및 경영진, 국내외 기업인 등 약 300명 참석

○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사업 적극 추진

-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광구 계약발효 서명('11.8월)
- 카자흐스탄 시추선운영계약 체결('11.8월)

○ UAE 아부다비국영석유사와 3개 유망광구 주요조건합의서 체결('11.3월)

- 본계약 협상 중이며, 연내 본계약 체결 추진

【Asian NOC CEO 포럼】

【우즈벡 광구 계약발효 서명식】

## 3 차질없는 정부 석유비축사업 추진

□ **(비축시설) 국내 9개 기지에 146백만배럴 규모** 저장시설 확보('11.8월말 현재)

○ 울산지하비축기지 준공('10.4월)으로 '80년 이후 국가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1~3차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비축저장시설 건설 완료

- 거제비축기지 입출하시설('11.12월 완공예정) 및 서산비축기지 시설개선('12.3월 완료예정) 공사 중

<정부 석유비축계획>

(단위 : 백만배럴,억원)

| 구 분 | 1차계획 | 2차계획 | 3차계획 | 계 |
|---|---|---|---|---|
| 건설기간 | '80~'89년 | '90~'03년 | '95~'13년 | '80~'13년 |
| 저장용량 | 44 | 52 | 50 | 146 |
| 사 업 비 | **9,376** | **19,960** | **26,714** | **56,050** |
| - 건설비 | 2,673 | 7,726 | 14,067 | 24,466 |
| - 비축유 | 6,703 | 12,234 | 12,647 | 31,584 |

□ **(비축유) 총 117백만배럴 확보**('11.8월말 현재)

○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13년**까지 **141백만배럴**의 비축유 확보 목표

(단위 : 천배럴)

| 구 분 | | 목표물량 | 확보물량 | 달성률 |
|---|---|---|---|---|
| 직접 | 정 부 예 산 | 94,739 | 83,912 | 89% |
| | 공 사 수 익 | 6,000 | 5,543 | 92% |
| | 소 계 | 100,739 | 89,455 | 89% |
| 간접 | 국제공동비축 | 40,000 | 27,400 | 69% |
| **총 계** | | **140,739** | **116,855** | **83%** |

○ '11년도 비축유 확보 : 목표 2,401천배럴 / 실적 2,251천배럴

- 금년목표 잔여물량(150천배럴)은 비축유 구입시스템[4]에 따라 10월초 구입예정

□ **(비축자산 관리)**

○ **(안전관리)** 9개 비축기지 10년 연속 무재해목표 달성

- 일본 대지진('11.3월) 발생후 주요 조치사항
  · 지진대비 비축기지 안전관리강화대책 시행 및 대응매뉴얼 제정
  · 일본 JOGMEC(쿠지 석유비축기지) 피해현장 견학 및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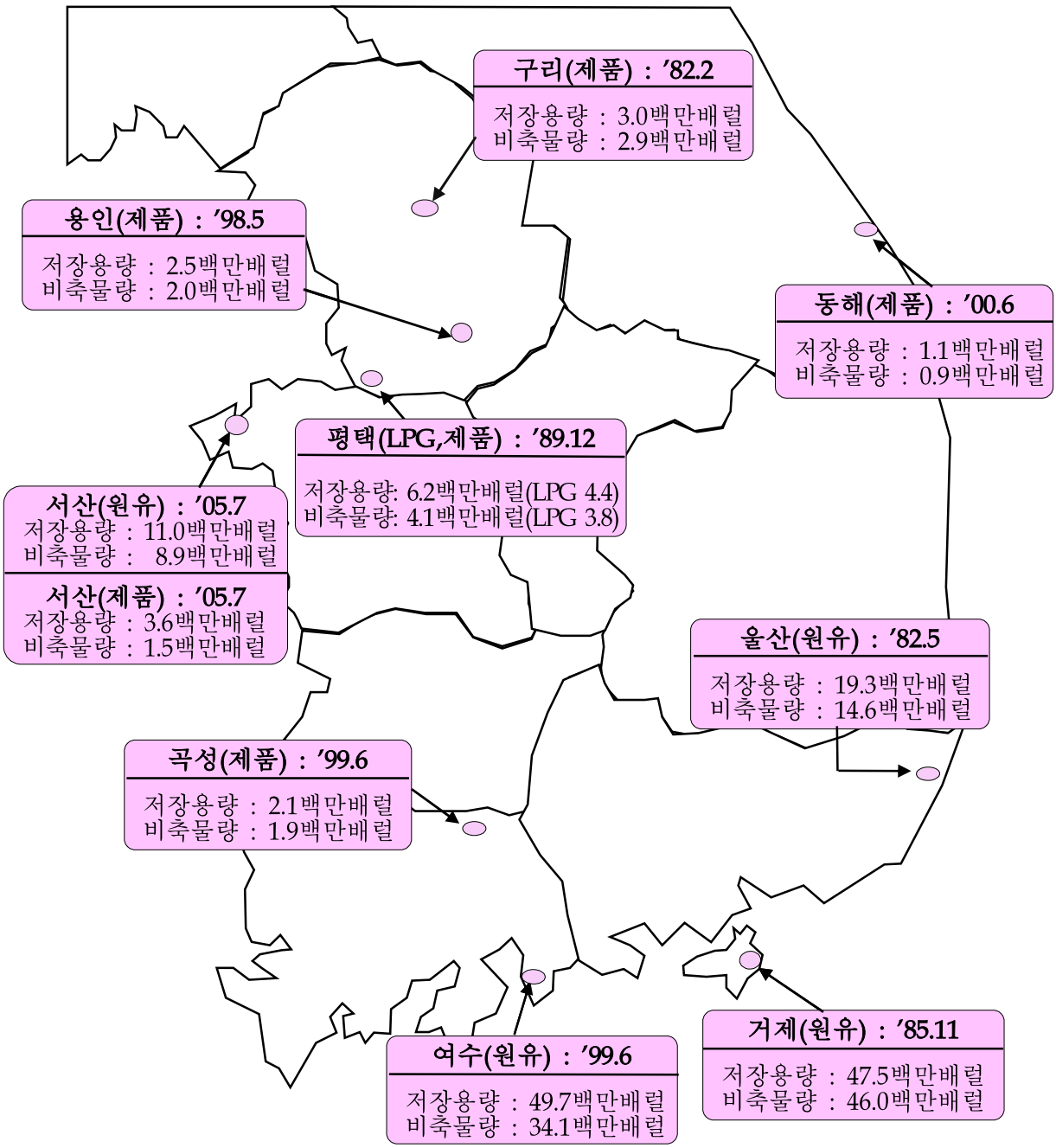
○ **(비축유방출)** IEA와 공조한 정부결정에 따라 전략비축유 346만배럴을 적시에 차질없이 방출함으로써 유가안정에 기여('11.7월)

4) 비축유 구입시스템 : 당해연도 정부에특 구입물량의 75%는 1~3분기 평균가격으로 구입하고, 잔량 25%는 4분기초 시장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유가변동에 따른 구입안정성 제고

# 비축기지별 비축유 확보 현황

('11.8월말 현재)

| 구 분 | 기지 | 비축유 보유물량(백만배럴) | | | |
|---|---|---|---|---|---|
| | | 원유 | 제품 | LPG | 계 |
| 저장용량 | 9 | 127.5 | 14.1 | 4.4 | 146.0 |
| 비축물량 | | 103.6 | 9.5 | 3.8 | 116.9 |




* 비축물량에는 국제공동비축량 포함

## 4 석유트레이딩 역량 강화로 석유산업발전 선도

### □ 석유사업

○ **(트레이딩)** 보유비축유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 창출 → 비축유 증량 재원 확보

- '99년 이후 총 109백만배럴 트레이딩 실시 2,712억원의 수익창출 → 비축유 554만배럴 자체 구입

-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트레이딩 물량 확대 추진('11년 목표 18백만배럴)

<트레이딩 물량 및 수익 현황>

| 구 분 | '99~'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8월 | 계 |
|---|---|---|---|---|---|---|
| 물량(백만배럴) | 52 | 17 | 18 | 13 | 9 | 109 |
| 수익(억원) | 1,475 | 351 | 419 | 392 | 75 | 2,712 |

○ **(원유 마케팅)** 석유위기 등 비상시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공사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공사 해외생산원유 직접 마케팅 추진

- '09.9월 미국 Ankor 광구 생산원유 마케팅 최초 실시(BP에 판매)

· '11년 마케팅 목표 : 4.2백만배럴(* '11.8월말 현재 실적 2.9백만배럴)

- 해외생산원유 연계 국내도입 : '13년까지 총 4.6백만배럴 도입 추진

<해외생산원유 도입물량 실적 및 계획>

| 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계 |
|---|---|---|---|---|---|
| 도입물량(만배럴) | 98 | 100 | 130 | 132 | 460 |

· '10년 캐나다 Harvest사 생산원유, 미국 Ankor사 생산원유 등과 연계하여 총 98만배럴 국내도입

→ 캐나다 Harvest사 생산원유 구입업체 중 Conoco Phillips로부터 61.7만배럴 및 미국 Ankor사 생산원유를 구입하고 있는 BP로부터 36.3만배럴 각각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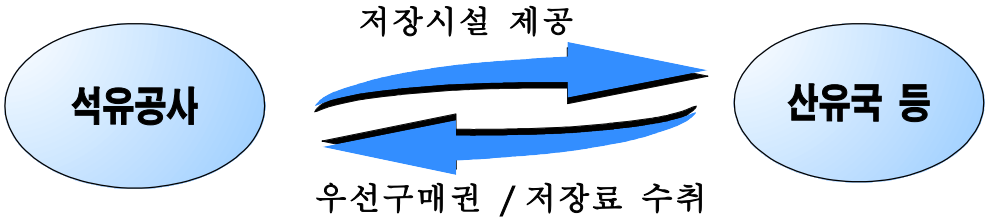
· '11년 국내도입목표 및 실적 : 1백만배럴('11.7월 계약완료/연내 입고 추진)

→ 영국 Dana사 생산원유 구입업체 중 Shell로부터 1백만배럴 도입계약 체결

○ **(국제공동비축)** 비축유가 투입되지 않은 공사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하여 산유국 등의 원유,석유제품을 유치·저장

→ 비축물량증대로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수익창출 도모

<국제공동비축 개념도>




- 산유국 및 메이저사 등 12개사와 국제공동비축 사업 중('11년 목표 39.9백만배럴)

* '99년 최초실시 이후 4,625억원의 수익 달성('99~'10 : 3,888억원, '11.8월 737억원)

|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1,8월 |
|---|---|---|---|---|
| 비축물량(백만배럴) | 34.8 | 38.7 | 39.9 | 27.4 |

*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사(SOCAR)와 5.3백만배럴 계약체결('11.9월 입고예정)

* UAE 국영석유사(ADNOC)와 6백만배럴 신규계약체결로 연말기준 40백만배럴 유치 예상

○ **(비축자산대여)** 민간 필요시 보유 비축자산 대여

- 석유수급차질 발생시 민간에 보유비축자산(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석유수급 및 물가안정 도모
- '82년 이후 비축유 280백만배럴, 비축시설 55백만배럴 대여 실시

<비축자산 대여 및 수익 현황>

| 구 분 | '82~'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8월 | 계 |
|---|---|---|---|---|---|---|
| 비축유 (백만배럴) | 250 | 11 | 5 | 5 | 9 | 280 |
| 비축시설 (백만배럴) | 44 | 4 | 3 | 2 | 2 | 55 |

* '82년 최초실시 이후 2,932억원의 수익 달성('82~'10 : 2,888억원, '11.8월 44억원)

## □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 사업개요

- 동북아지역이 세계 석유소비시장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강점과 비교우위의 인프라(항만조건, 잉여정제력 등)를 이용한 동북아 오일허브(Oil-Hub)[5] 구축

○ 사업추진효과

- 석유수급 안정 및 석유안보 확보
  · 대규모 석유재고가 국내에 상존함에 따라 시장에 의한 자동적인 석유수급안정화 효과 발생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 가능
- 동북아 석유 물류시장 선점
  · 석유물류 환적 및 장거리수송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
  · 시베리아 원유의 동북아 공급 중심기지로 발전 추진
- 국가경제 활성화 및 전후방 연관 산업 발전
  · 기존 원유정제, 석유제품 판매 일변도의 기존 국내석유산업에 신사업방식인 석유물류(저장·거래·중개) 도입
  · 석유 중개·거래, 독립계 저장시설, Pricing·석유정보, 해운·항만 부대사업, 금융·보험 등 전방위적으로 연관산업 발전효과 발생

○ 여수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

| | |
|---|---|
| 사업주체 | 회사명 : Oilhub Korea 여수(주)<br>석유공사(78%), SK(11%), GS(11%) |
| 사업부지 | 석유공사 여수기지 내 유휴부지(약 261,540㎡) |
| 시설규모 | 저장시설 : 820만배럴(탱크 36기, 원유 400만, 제품 420만)<br>Jetty(부두) : 4선석(20만, 12만, 8만, 1만 DWT)<br>예상투자비 : 약 5,236억원 |

- '09.1~'11.1월 : 기본설계 및 인허가
- '11.2~'12.12월: 시설 건설('13년 초 운영개시 목표)

5) 오일허브(Oil-Hub) : 세계 주요 항로상에 위치한 석유의 집산지로 석유의 생산·공급, 입출하·저장·부가처리, 중개·거래, 금융 등 석유물류 활동의 중심 거점. 종합 국제석유물류시장

## ○ 울산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

| | |
|---|---|
| 사업부지 | 울산 신항 매립지 899천㎡(북항 295천㎡/남항 604천㎡) |
| 시설규모 | 저장시설 : 2,840만배럴(북항 990만 배럴, 남항 1,850만 배럴)<br>총 사업비 : 16,397억원<br>- 국고 5,649억원 : 부지매립 등 기반시설<br>- 민자 1조748억원 : 저장시설 건설 |

- '10.1~12월 : 기본조사/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용역
- '11.1~12월 : 기본설계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1.5월)

- '11.10~12월 : 민간투자심의사업 심의안 상정 및 사업추진방식결정
- '12.1~12월 : 인허가 및 하부시설 실시설계/국내외 사업 참여사 선정
- '13 ~ 15년 : 시설건설('16년 상반기 운영개시 목표)

| 여수사업 | 울산사업 |
|---|---|
| | |

## ○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현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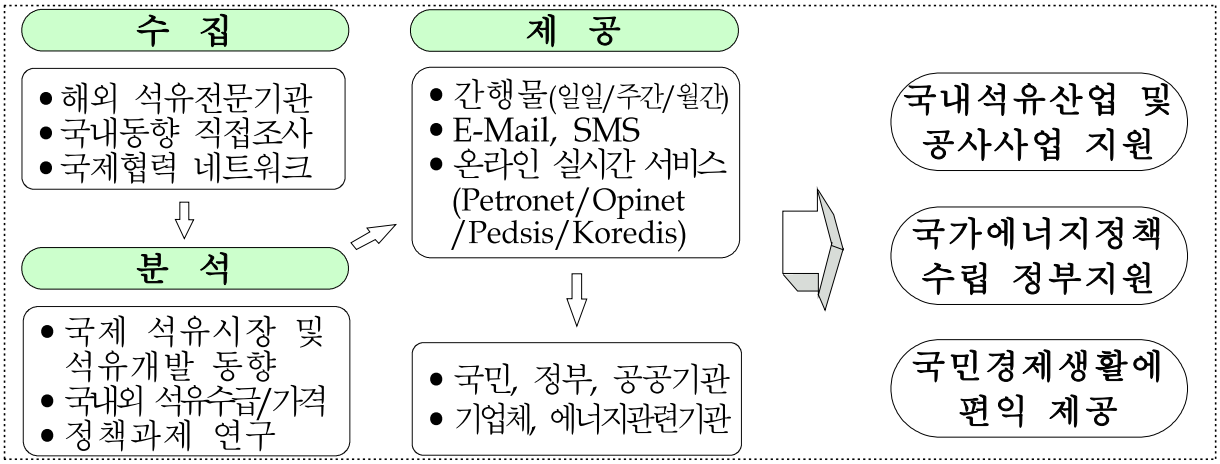
- 싱가포르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부여로 경쟁력 강화 필요

| 현안사항 | 대응방안 |
|---|---|
| ■ 내국물품의 연안수송시 국적선 사용 강제(해운법)<br>- 예외적인 경우 국토해양부 심의·허가 필요(30일 소요) | ■ 해운법 개정 또는 심의기간 단축 추진<br>-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 |
| ■ 보세구역내 국내산·외국산 석유의 블렌딩 규제(관세법) | ■ 보세구역 내 자유로운 블렌딩 허용<br>- 관세청,기재부에 애로사항 전달<br>- 탱키지업계 제도개선 공동추진방안 협의('11.6.17) 및 시행<br>- 업계공동으로 대정부 협의 및 규제완화 지속 추진 |
| ■ 보세구역내 석유거래를 수행하는 해외석유업체에 대한 부가세 과세 가능성<br>- 글로벌 석유회사의 참여 제약 | ■ 비과세 또는 영세율 적용근거 명확화 추진<br>*국세청 적부심사결정('11.5.27)에서는 공사의 영세율 주장이 수용됨 |

# 5 석유정보 서비스 강화

## □ 석유정보 제공분야 및 서비스 체계

○ 국제유가 모니터링 및 국제석유시장 분석, 전망
○ 국내외 석유산업, 석유개발, 석유정책 동향조사 및 분석
○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제품가격 조사 발표
○ 정책과제 연구, 산유국 DB 구축 및 국제 에너지기구와의 협력




## □ 최근 석유정보 서비스 생산방향

○ **국내외 석유시장 환경 급변에 적극 대응**(이슈발굴, 트렌드 중심)
- 글로벌 금융/경제 변수, 지정학적 이슈 등 석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모니터링 및 분석범위 확대

○ **석유자원 확보, 석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정보지원 강화**
- 공사 대형화 이후의 성장전략 의사결정정보 제공
- 국가 어젠다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진출 정보 지원
-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역내가격체계(FCKP)[6] 도입 추진
  · 도입타당성, 사업추진방향 수립 컨설팅용역 진행 중('11.7~9월)

○ **고유가에 대비한 실시간 대국민 공익정보 제공 확대**

| 구 분 | 주 요 내 용 | 이용자 | 비 고 |
|---|---|---|---|
| Petronet | ▪ 국내유일의 종합 석유정보망('99.1월~) | 모든 국민 | 회원 : 180천명 |
| Opinet* | ▪ 주유소판매가격 실시간 제공('08.4월~,세계최초)<br>-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 부가서비스 사업자 제휴확대 | 모든 국민 | |
| Pedsis | ▪ 석유수급 부문 국가 통계 | 정부·관련업체 | |
| Koredis | ▪ 해외자원개발정보('10.12월~) | 정부·관련업체 | 시스템 확장 중 |

* 이용자 추이(일평균) : ['08.7월] 3.1만명→ ['10.7월] 5.9만명→ ['11.7월] 13.1만명

6) FCKP(FOB & CFR Korea Price) : 동북아 시장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역내 수급 및 제품거래 특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한국기준 국제석유거래가격을 도입하는 것으로,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에 기여

## 6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 □ 공생발전 및 동반성장 적극 추진

○ **(추진조직)** 관련업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공생발전 추진단('11.9월), 동반성장추진전담반('10.1월), 중소기업지원위원회('09.7월)

○ **(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 실시

-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체결('11.7월)
- 국산화사업 확대(비축기지 유지보수자재 등)
- 서비스부문 성과공유사업 개선(비축지사 경비용역 등)
- 중소기업 우대정책 운영(중소기업 참여가점제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공공구매제도 강화

* '11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58.5%(* '11.8월말 현재 실적 56.5%)

-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제도 운영

*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등

○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지원 및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확대

- 서산 동부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체결('11.7월)
- 추석맞이 전통시장 물품 구입 및 직원대상 바자회 실시('11.9월)
- 전통시장상품권 구매규모 확대('11~12년 7억원 규모 구매 예정)

* 용도 : 각종 사내포상금, 사회공헌 등 행사시 필요물품 구매 등으로 활용

【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체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 □ 사회공헌활동 강화

○ 사회공헌 예산규모 지속적 확대

(단위 : 백만원)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계획) |
|---|---|---|---|
| 536 | 4,178 | 4,475 | 4,965 |

○ 비축지사 지역사회공헌

- 본·지사 합동 사회공헌활동, 어린이 문화체험행사, 지역주민 초청 비축기지 오픈하우스 행사, 1지사 1촌·1교 자매결연

【울산 종동마을 벼파종작업】

【비축기지 인근 어린이 문화체험행사】

○ 해외지사 지역사회공헌

- 페루 사회공헌 비영리법인 설립 및 활동
- 카자흐스탄 유치원 건립기금 기부, 인근학교 학생 초청행사

○ 소외계층 후원

- 복지기관,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후원

○ 학술문화진흥 후원

- 청소년 장학사업, 석유개발장학금,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지원

## □ 선진 기업문화 선도

○ 고용노동부 201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11.8월)

- 협력적 노사문화를 모범적 실천, 사회저변에 상생의 노사문화 전파

○ 민간형 성과보상제도의 성공적 정착

- 공기업의 부정적인 조직문화 타파,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모범사례 발표('11.1월)

# Ⅲ. '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1. 최근 해외기업 인수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부채 및 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공사 대형화 추진에 따른 M&A 등 적극적 개발사업 추진으로 최근 부채 증가

| 구 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
| 부채 | 3.7조원 | 5.5조원 | 8.5조원 | 12.3조원 |
| 부채비율 | 64% | 73% | 102% | 123% |
| 이자보상배율[주)] | 36.8 | 27.4 | 8.5 | 5.8 |

주) 기업의 레버리지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기업의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EBITDA)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금융비용)

- 대형화 추진으로 차입금 증가가 불가피하나 재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방안 실행 중

・부채증가 최소화를 위한 방안

* 탐사성공률 제고, 재무적 투자자 유치, 자산 매각, 수익증대 및 예산절감

・부채구조 안정화를 위한 방안

* 외부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재무리스크 최소화할 수 있는 부채구조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차입금의 장단기 구조, 금리구조 등을 재구성

- 대형화 목표인 석유생산량 30만배럴/일 달성 이후 생산광구로부터의 매출액 및 이익증가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자본규모 확대로 부채비율은 '14년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구 분 | '11년 | '12년 | '14년 | '15년 |
|---|---|---|---|---|
| 영업이익 | 1.0조원 | 1.2조원 | 2.5조원 | 2.7조원 |
| 부채비율 | 162% | 169% | 165% | 156% |
| 이자보상배율 | 5.3 | 4.5 | 6.2 | 6.6 |

* 연결결산 기준

○ 공사는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규정을 마련하고,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환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 |
|---|---|
| 환리스크 관리 조직 | 환금리위원회('09년 신설) |
| 환리스크 관리 규정 |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기준 |
| 측정시스템 |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과 연계된 환위험관리시스템 구축(2010년 완료) |

- 매월 환리스크를 측정하여, 일정한 손실한도를 초과할 경우 100%를 헷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용 중

- '11년부터 IFRS(국제회계기준)도입과 함께 기능통화제도를 도입, 결산통화를 기존 원화에서 미달러로 변경.

⇒ 미달러에 대한 환위험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2. 탐사성공률 제고 등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해외 석유개발투자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선진석유회사 벤치마킹을 통해 탐사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신규사업 참여전 유망지역 기술검토 강화
  · 상시 유망지역에 대한 분지연구(Basin Study)및 광역지질연구(Regional Study)를 통해 축적된 유망지역 정보를 토대로 탐사광구 국제입찰 참여

- 기술지원(Technical Service) 역량 강화
  · 탐사단계의 주요작업인 물리탐사자료 취득·처리·해석 단계의 기술역량 강화

- 역량개발, 평가제도 수립 및 교육훈련을 통해 전직원의 역량개발

-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채용 확대(캐나다 글로벌기술연구센터 5명)
  · 외국인 전문가 채용에 따라 메이저사와 동일한 기술역량 확보

○ 해외투자자산의 구성을 최적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관리 조직 구성, 운영 중
- 투자자산의 유망성 재평가에 따른 핵심사업 역량 집중

## 3.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 시 재무상황 및 개별리스크를 고려하여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국내 민간기업과의 해외석유개발 공동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기준 및 절차를 규정화하여 운용 중

○ 활발한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민간기업 및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공사사업계획을 소개하고,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여 업체의 투자희망 금액 및 관심지역 등을 파악한 후 컨소시엄 대상 사업 물색 중

○ 연기금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공사가 기확보한 생산자산 매각추진
- 미국 Ankor 자산 지분일부 연기금 및 민간기업에 매각 추진 중
- 기타사업 연기금 투자 유치 협의 중

###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공동사업 추진
* 신규사업 투자목적 및 의향이 기업별로 상이하고 가변적이므로, 전통·비전통 유·가스전별로 공동추진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의 수요 및 의향 등을 파악

## 4. 공사 대형화에 따른 메이저 수준의 석유개발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해외 인수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기술진 파견 등 석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글로벌 석유개발전문가 영입(석유개발연구원장·인사고문/'10.3월)을 통하여 국제적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자체기술인력 육성 가속화 기반 마련

○ 캐나다 인수기업 하베스트사에 글로벌 기술연구센터 설립('10.11월) 및 운용 활성화를 통한 선진기술역량 내재화
-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채용(5명) 및 공사파견인력(5명)을 활용하여 공사 주요사업(아부다비, 이라크사업 등) 기술지원 및 독자적 연구개발 수행

○ 글로벌 KNOC 기술로드맵 경신('10.12월) 및 적극적 실행
- 해외인수회사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기술이전방안과 선진석유사 기술력 분석을 통한 E&P 기술력 확보 및 기술인력 역량향상 전략 도출

○ 전사 기술인력 역량평가결과를 반영한 개별자기개발계획(Individual Development Plan) 수립 및 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10.12월)

○ 고급 기술인력그룹(Specialists) 확충을 위한 기술인력 경력관리제도(Dual Y-Track) 운용 활성화('11.4월~)

○ 인수 초기 피인수 기업의 안정적 운영 및 통합을 위하여 기존 인력의 교체를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분야에 공사 기술, 사무 인력 파견을 통해 선진기술 습득 및 운영 노하우 습득
- 페루 Savia Peru사 8명, 미국 Ankor사 5명, 캐나다 Harvest사 15명, 영국 Dana사 13명

## □ 향후 추진계획

○ 석유개발 기술로드맵 수립에 따른 액션플랜('10~'19년) 적극 실행으로 공사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

- E&P 사업역량 강화 및 M&A를 통한 공사의 양적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집중 및 기술인력 양성

○ 글로벌 기술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한 기술·인력 확보 가속화

- 석유개발기술 해외전문가 그룹을 주축으로 공사 기술력 및 사업수행 역량 강화
- 해외전문인력과 공사인력의 1대1 코칭 및 공사기술인력 3년주기 순환배치를 통해 기술력 확보 가속화

○ 해외 인수자회사에 공사 추가인력 파견을 통해 운영노하우 축적 및 선진기술 습득 추진

○ 전사적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다가치'와 연계한, E&P 자료관리시스템(KOTIS) 통합 운영

- 자료관리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 등을 연동하여 지식등록 및 검색을 통한 기술정보 공유 및 기술인력 역량 향상

○ 해외기술인력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인사운용, 관리체계 등 글로벌 인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본사-해외기술인력 협업 시스템 활성화

- 기술역량평가, 체계적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기술역량 체화 및 전문기술자 양성체계(Career Path Management)를 제도화, 조기에 기술력 확보 추진

## 5. 두성호 교체, 시추선 추가매입 등을 통해 시추선사업의 수익사업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시추선사업부문 지속 성장방안 도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평가 용역 진행 중('11.9~10월)

○ 기 보유중인 두성호는 '11.11월부터 단계적 성능개선 실시

- 소요자금 : 8천만달러
- 조업수명 : 15년 연장('25년까지)

*현재 선령 27년으로 설계수명 30년에 근접

### □ 향후 추진계획

○ 진행 중인 시추선사업 관련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시추선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

○ 두성호 성능개선

- '11~'12년 : 선체보강 및 주요장비 정비
- '13년 이후 : 노후장비 교체 및 선체 추가 보강

## 6. 석유비축기지의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화된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조치실적

○10년 이상~20년 미만 비축기지 4개소, 20년 이상 4개소로 비축기지 노후화 진행

○주요시설물에 대해 엄격한 보수 및 점검주기를 설정하고, 매년 3개년 단위의 시설물 연차보수계획 수립 등으로 비축기지 노후화 대비 최상의 비축시설을 유지관리 중

- 연도별 연차보수 실적(계획)

| '09년 | '10년 | '11년 | '12년(계획) |
|---|---|---|---|
| 87건/77억원 | 94건/80억원 | 74건/168억원 | 96건/246억원 |

○'10.12월 비축기지에 경험이 풍부한 사내 전문가를 활용 비축시설 노후화 정밀진단을 실시, 노후설비 18건에 대한 3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완추진 중

○노후 비축시설 종합진단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을 연차보수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

- 대　　상 : 울산지사 폼시스템 교체 등 18건
- 소요비용 : 53억원
- 추진시기 : '11 ~ '13년

※'11년 반영금액 : 11억원(곡성 소방엔진펌프 교체 등 6건)

## 7. 해외 생산광구의 생산물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도입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공사 대부분 광구의 생산원유는 국내도입이 가능하나, 평상시에는 수송비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현지판매 중이며, 비상시 국내도입을 위한 관련근거(정관, 계약 등) 마련

- 미국 Ankor사 정관 변경('11.5월), 캐나다 Harvest사 제도 도입('11.6월), 영국 Dana사 비상시 구입계약 체결('11.8월), 카작 Kensary사 비상시 구입계약 체결('11.9월), 페루 Savia Peru사 제도 도입('11.9월)

○ 공사 해외생산원유 연계 국내도입 사례

- 공사의 해외생산원유 구입업체로부터 비축에 적합한 유종으로 대체 도입
  · 캐나다 Harvest 617천배럴('10.9월) : 울산비축기지 입고
  · 미국 Ankor 363천배럴('10.11월) : 울산비축기지 입고
  · '11년 목표 1백만배럴 계약완료('11.7월) : 연내 울산비축기지 입고 추진
    * 영국 Dana사 생산원유 구입업체 중 Shell로부터 1백만배럴 도입계약 체결

### □ 향후 추진계획

○ 비상시 해외생산원유 국내도입이 가능토록 관련근거 지속적 강화 및 국내도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트레이딩 역량 강화 추진

- 기존 판매 위탁광구에 대해 공사 직접마케팅 전환

## 8. 유가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인력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국제유가 전망매뉴얼 작성 및 활용('10.7월~)
- 국제유가 전망에 필요한 배경지식 및 주요절차 등을 정리하여 유가전망 담당직원의 역량강화에 기여

  * 향후 국제유가전망 담당직원 내부교육용으로도 활용

○ 유가전망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 시행
- 국제에너지기구(IEA)(1년), PIRA University(단기) 등 외부전문기관 파견 및 교육

○ 유가전망 정확성 제고를 위한 내부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 유가전망 정확도에 대한 평가지표 반영

### □ 향후 추진계획

○ 해외 석유전문기관 장기 파견 지속
- 국제에너지기구(IEA), PIRA사 등 전문기관 장기파견 및 교육

○ 국제석유 트레이딩 현지교육 강화
- 싱가포르 현지 트레이딩 전문기관에서의 실무경험 축적

○ 유가전망 담당직원의 국내외 학위과정 등 심층 장기교육 추진

○ 유가전망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 및 조직지원체계 검토

## 9. 공사 매도가능증권의 105억원 손실 발생, 공사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대한 투자 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공사 보유자산 투자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99, '00년 자금운용수단의 다양화 및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유자금 중 일부 주식투자

-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01년 초 내부감사를 통해 일부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련자를 징계조치

* '01년 국정감사시 국회차원의 조사소위원회 구성, 특별감사 실시('01.9월)

» 시정조치 : 자금운용 및 감사업무의 체제 강화, 산업자원부의 감독기능 강화

- 이후 자금운용기준을 개정하고 사후감시시스템을 강화
- 현재 공사는 자금운용시 제1금융권의 확정금리 상품에만 투자

○ '01년, 보유주식 전량매각방침을 수립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비상장 주식은 외부전문기관에 매각을 위탁하였음에도 매각 실패

- '10년, 보유 주식(한국마이크로닉)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매각공고('10.12월 2회), 대주주 매수의향 타진 등을 통해 매각을 재추진하였으나, 인수의향이 있는 투자자 부재로 인하여 매각 실패

### □ 향후 추진계획

○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향후 인수의향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매각추진 예정